마음책 다시 읽기 **아픔을 다스리는 마음공부** ⑩ 마음의 눈을 뜨고 지혜를 밝혀 나가는 길(完)

▶ **한줄 요약**
우리 인간들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양심의 눈을 가지고 있다. 이 눈으로 마치 신의 눈처럼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응시할 수가 있다.

양심의 눈으로 스스로를 바라보라

서양 불교학자들은 부처님이 왕궁을 버리고 감행한 출가를 가리켜 '위대한 포기(The Great Reunciation)'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그와 같은 위대한 포기는 무엇보다도 먼저 가정생활의 포기였다. 하지만 출가란 가정생활의 포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재가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보다 넓게 세속적인 관심사 일체를 떨쳐버리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아무 일에도 집착하지 않는 생활로 들어감을 뜻한다.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마저도 철저하게 포기함을 뜻한다. 일체의 세속적 인간에 대한 관심의 포기 속에서 인간의 약점을 스스로 극복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출가의 정신이다. 세 벌의 옷가지와 한 개의 밥주발밖에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출가생활인 것이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생활 중에도 가장 낮은 방법인 밥을 빌어먹는 탁발에 의거했다.

이처럼 가장 낮고 밑바탕에 속하는 생활양식을 하고자 함은 권력에 의함도 아니고 가난 때문도 아니고 고행을 하고자 함에서도 아닌,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출가하여 스스로 택하는 방법이다. 인간 향상의 길에서 욕망을 조절하고 누르는 일을 첫째 안목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출가생활은 욕망을 조절하고 비움으로써 어떤 방해도 받지 않는 최상의 행복을 확보하고자 한다. 지혜로 탐욕을 조절함으로써 그 욕망의 절단을 꾀하는 것이 부처님이 설법한 해탈의 길이다.

고는 탐욕에 따라 존재하고, 도는 가난에 의하여 이룬다. 예수는 완전히 가난한 마음으로만 인간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고, 부처님은 완전히 가난한 마음과 정신으로만 도를 깨우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고통이란 무한한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고, 따라서 이런 모든 괴로움에서 떠나는 방법은 모든 욕심의 조절, 모든 욕심으로부터 떠나는 것으로, 현실적·사상적·정신적인 욕망으로부터 가난해진 삶에서만 이루어진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조금은 욕심을 줄이고 조금은 부족한 그런 생활을 영위할 때 배우는 것도 많고, 그런 가운데서 진실로 편안함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런 만족감은 우리의 마음이 얌전하게 가라앉았을 때만 아주 뿌듯하게 느껴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진정한 인간의 삶의 만족감이다.

부처님은 해탈의 길은 가난에 있다고 설했고, 예수의 하늘나라는 가난한 자의 나라라 했다. 가르침의 길은 마땅히 가난을 배워야한다.

세속적인 최고의 행복을 떠나서 인간 생활로서는 최하의 생활로 45년 동안 온 정열을 기울여 설법한 부처님을 따라 능히 자기를 다스려 맑고 바른 행위를 익혀 네 가지 진리를 깨달아 끝내 열반을 실현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인간의 행복은 없을 것이다. 이에 이르면 비로소 사람들은 생사에 의하여 마음이 흔들리는 일이 없고, 걱정·근심·분노도 없이 다만 더 할 바 없는 평안 속에 있게 될 것이다.



나는 행복한가? 당신은 행복한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한 번 뒤돌아보게 하는 질문이다. 우리 인간들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양심의 눈을 가지고 있다. 이 눈으로 마치 신의 눈처럼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응시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은 마음의 눈, 양심의 눈으로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며 나는 어떠했는가를 반성할 수도 있고, 또 앞으로의 길을 바라보며 스스로 부끄럽지 않을 자기를 만들어 갈 수가 있는 마음, 양심도 가지고 있다.

노년에 와서 괴테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걸어온 길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다. 결국 나의 삶이란 괴로움과 무거움을 걸머지고 걸어온 그것일 뿐이다. 분명한 것은 나의 75년간의 전 생애에 있어서 정말로 행복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불과 몇 주 정도나 될까?"라고 했다.

파스칼은 "초목은 자기가 불쌍하다고 생각할 수 없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이라 할지라도 불행하지는 않다. 불행한 것은 다만 인간일 뿐이다. 인간이 위대하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점에서 위대한 것이다"라고 했다.

참으로 살아 있는 인간이라면, 주어진 불행을 바라보고 그 불행과 대결함으로써 무엇인가 해결점을 찾고자 해야 한다. 냉정한 성찰에 의해 행복이라는 가면이 벗겨지려는 것을 피하지도 말고, 또한 불행이라는 것이 쑤시고 들어오려는 틈을 막으려 하지도 말고, 오히려 더 떳떳이 다가오는 불행을 바라볼 수 있고 내게 오는 이 불행에 오히려 다가가 그 위에 내가 앉아 말없이 조용하게 주시하며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 불행이 있다 하면 이를 똑바로 보고 정면으로 대결하여 이 불행을 넘어서서 더욱 힘찬 걸음으로 앞서 나가야 한다. 이것은 바로 부처님이 택한 길이었다. 부처님이 가르치는 길은, 이 세상의 불행을 통찰하여 이를 뛰어넘어서 피안의 자유와 행복한 생에 이르는 길, 그것이다.

부처님 출가 '위대한 포기'로 불려
욕망으로부터 가난해진 삶 실천해
참된 사람은 주어진 불행과 맞서고
뛰어넘어 피안의 세계로 가야한다

현대 물질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치고 아프지 않은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따지고 보면 거의 모든 사람이 어디라도 다 앓고 있다고 보아도 그리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몸이 앓고, 마음이 앓고, 정신이 앓고, 사회도 앓고, 정치도 앓고. 모든 사람과 국가들이 안 아픈 곳이 없는 실정이다. 지구가 환경이든 인간이든 고통의 신음으로 가득하다. 하루도 편한 날이 없는 실정이다. 아직 철이 안 든 어린아이들이나 완전히 돌아버린 정신병자가 아니면, 아프지 않다고 큰 소리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현실이다.

이런 환경 속에서 잘 견디어 내고, 스스로 추슬러 설 수 있는 힘을 갖자고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기며 오십 년 가까이 자리를 펴고 앓고 있는 늙은이가 아직도 이 글을 쓸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 갈 수 있게 된 비밀을 이 책으로 써내는 것이다. 이 글을 써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이 글을 써서 자리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다. 그래도 나는 앓는 몸을 이끌고 매일같이 써나가고 있다. 자리보전하고 정신없이 앓고 있을 몸이 이만큼이라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내 몫의 감사를 표해야 한다. 그것이 나처럼 앓으면서 지내는 환우들, 나처럼 가슴에 멍이 들어 억울하고 분한 사연이 너무 무거워 숨이 막힐 듯 괴로운 환우들이 정신과 마음만이라도 훨훨 털고 일어나서 스스로를 살려내야 한다는 내 경험의 외침이다.

그래서 이 글을 써가는 데에는 사실 번듯한 순서도 목차도 없다. 그냥 생각이 나는 대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나처럼 아프고 억울한 환우들에게, 비록 육신에는 병이 들어 있어도 정신과 마음만은 건강하게 일으켜 세워 청정하게 살아가자는 정성으로 나의 비밀을 솔직하게 써낸 것이다. 그것이 어떤 병이건 간에, 비록 자리 펴고 누워서만 지낸다 하더라도 생각은 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 보람 있는 삶도 꿈꿀 수 있고, 주어진 몫을 이행해 갈 수도 있고 생각이 미치게 되면, 저절로 일어나 앉아서 무엇이라도 하고 싶어진다.

그러노라면 사는 맛도 슬며시 일어나고, 따라서 생각도 손가락도 근질근질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서이다. 생각이 살아나면 삶 전체가 활기가 돋고, 손가락이 꼼지락거리기 시작하면 무엇이라도 만들어내게 된다. 이런 것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가 만들고 찾고 하면서, 계속 앓고는 있지만 아픔도 때때로 잊을 수 있고 그래서 신이 나고 기쁘기도 하여 슬쩍 그 다음을 생각하게 된다. 이 세상에서는 어떤 희망도 갖기가 어려워진 신세가 되었지만, 마음과 정신만은 밝게 살겠다는 마음의 의지이다. 다음 생을 위해서.

오히려 이 세상에 대해 아무런 희망이나 욕심을 낼 수 없기에 마음속은 깨끗하다. 이런 깨끗한 마음은 건강하게 펄펄 뛰어다니며 현실의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사람들로서는 가져보기가 참으로 어려운 보물들이다. 우리는 사회에서 밀려난 병자들이니까 우리의 마음은 비워졌고, 그래서 깨끗하다. 병들고 늙은 상황에서 불쌍한 나 자신을 꾸겨진 휴지 조각처럼 아무렇게나 막 버려버릴 것인가, 아니면 그런 속에서라도 비집고 나와서 스스로가 당당하게 일어설 것 인가를 택할 수 있는 것도 앓고 누워 있는 나 자신이라는 점을 부디 기억하길 바란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나 자신은 그렇게 아직도 살아서 움직이고, 그림으로 부처님의 모습도 모셔 내오고, 이런 글도 써가고 있는 것이다.

어제는 나를 찾아온 사십 년도 넘는 오랜 친구의 이름이 통 기억이 안 나는 것이었다. 한참 동안이나 같이 산보를 하고 차도 마시면서도 기억이 안 나서, 결국은 솔직히 고백을 했다. 고백을 하는 그 순간에 친구의 이름이 탁 떠올랐다. 이렇듯 깜박거리는 늙은 병자이지만 아직도 멀쩡하게 내 몫을 하고 있다. 아프면 자주 잊어버리고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가끔씩 실수를 하여 속이 상할 때도 많지만, 나이가 많은 탓이니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면 또 그런대로 아무렇지 않다. 그리고서는 계속하여 부처님 공부를 하고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다. 나의 마지막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나는 그때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놓치지 않고 부처님의 마음공부를 계속 마음속에 담고 가련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최혜자 지음 / 운주사 펴냄〉

전통과 미래, 그리고 한국불교의 자부심
BTN 불교TV
방송시간안내
BTN 불교TV 대표 프로그램



법상스님의 반야심경과 마음공부
법상스님만의 논리적이면서도 편안한 생활법문
본방송 (월) 07:30 재방송 (월) 19:30, (토) 22:30



자현·광우스님의 끝판! 맛수다
자현스님과 광우스님의 '맛있는 수다' 재미있는 불교공부
본방송 (수) 07:30 재방송 (수) 19:30, (일) 14:00



동훈스님의 다음생 이야기
오늘 좋은 씨앗은 내일 좋은 열매!
본방송 (금) 07:30 재방송 (금) 16:00, (일) 21:00

BTN 채널안내 | olleh 233번 tv 295번 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